



클리어마인드

“모든 불자 클리어 하도록...”

불서출판사를 하나도 아니고 두군데나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 부산 불서출판의 든든한 버팀목 '현대북스'와 서울에서 활발하게 출판활동을 펼치고 있는 '클리어마인드'가 한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 아마 흔히 알려진 사실은 아닐 것이다. 두 출판사 모두 젊은 사장의 감각과 독특치 않은 불심으로 만들어진 책들이 주류를 이룬다. 두 출판사와 출간물을 아우르고 있는 사람, 오세룡 사장이자.

“불서출판은 '인연'이라는 말 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출판안하려 한 적도 있었는데, 벗어나면 또 저도 모르게 제자리로 오게 되더라고요.”

서울 클리어마인드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불서 출판은 '인연'이었다는 말로 이야기의 문을 열었다. 부산 조계종립 해동고등학교를 다녔던 불교학생회 출신 청소년이 불서출판사 사장이 되어, 꿈을 펼쳐가고 있는 이야기.

그에게도 불서출판 인생의 시발점이 된 한 권의 책이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겁니다. <해인지>에 연재됐던 현진 스님의 <삭발하는 날>(후에 책으로 출간)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스님의 생활을 글로 읽게 되다니요. 신선한 감동이었지요. 읽으면서 출가하고 싶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 때 이미 오 사장은 한 권의 불서가 얼마나 신심을 둘 수 있는가를 스스로 체험했던 것이다. 청소년기에 그렇게 품었던 열기, 아직도 갖고 있을까. 그것은 오 사장의 현재 행보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오 사장은 요즘 클리어마인드를 통해 활발히 책을 펴내고 있다. 지난 달 <돈오선>을 펴냈는데 이번 달에는 또 약천사 회주 해인 스님의 책 <신심>과 <원력>이 출간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몇몇 유명 집필자들과의 계약도 체결했다. 이 왕성한 활동은 그 불서를 향한 청소년의 열망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 속 산물이라.

클리어마인드는 2005년 설립됐다. 클리어마인드야 몇 해 되지 않았지만 오 사장은 부산에서 '현대북스' (2000년 설립)로 지역불서출판 바람을 일으켰던 이력이 있다. 그가 '부산'이라는 터전을 두고 서울에 온 이유는 뭘까. 오 사장은 “전체 출판유통의 70%에 달하는 서울출판계를 꼭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또 하나 '클리어마인드'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있다. 현대북스가 간화선의 요체를 설명한 <간화정로>(월암 지)처럼 다소 무거운 책으로 주목받았다면 '불교의 대중화'를 지향점으로 삼는 출판사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오



현진 스님 글로 불교인생 시작

좋은책으로 불서 대중화 시킬 것

사장은 지역청년회활동, 불교활동을 하며 진짜 대중들이 목말라 하는 불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서원을 클리어마인드에서 비로소 키워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클리어마인드', 하면 떠오르는 책들은 사실 그리 쉽지 않다. '대중서=쉽다'는 공식이 반드시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클리어마인드 대표로서 격인 <염불선> <문없는 문, 빛장을 열다> <돈오선>만 봐도 그렇다.

특히 '무문관 일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문없는 문...>(김성우 엮음)은 클리어마인드의 간판 격인 도서다. 책의 탄생 스토리가 재밌다.

“평소 존경하던 스님이 보관하고 있던 일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분이 무문관에서 오랜 시간 수행하셨던 분인데, 그 일기를 보니 일반인은 감히 생각도 못했던 무문관 생활이 자세히 기록돼 있는 겁니다.”

당시 <문 없는 문...>에 실린 일기가 짜다, '무문관'을 일기라는 사적 영역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다.

출판사 수장으로서 오세룡 사장은 자신을 어떻게 평할까? 스스로 “사람 욕심이 많다”고 한다. 그는 인재를 발견하면 데려오고 싶어 한다. 이는 그의 꿈과도 연결돼 있다. 좋은 책으로 불서를 대중화 시

키는 것도 그의 꿈이지만 두 출판사를 크게 성장시켜 불교계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그의 꿈이다. 이를 위해 오 사장은 쉴 틈 없이 뛰어다닌다. 필자들 만나라, 부산과 서울에 각각 있는 출판사 관리하라, 그의 하루는 숨 가쁘게 돌아간다.

“그래도 좋아서 그런지 힘든 줄 모르겠어요.”

클리어마인드. 풀이하면 '정정심(淸淨心)'. 사람의 마음을 맑게 가꾸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오 사장이 인터뷰 중 한 말이 있다. “준비를 오래 한 책은 거짓말을 알려”는 것이다. 지금 오 사장이 생각하듯, 클리어마인드를 통해 만나는 불서로 불자들이 '클리어 마인드(Clear mind)' 할 수 있다면 출판인으로 더 큰 보람이 있을까.

글=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클리어마인드 & 현대북스 도서 BEST 10

순위	도서명	지은이
1	문없는 문, 빛장을 열다 (클리어마인드)	김성우 엮음
2	간화정로 (현대북스)	월암
3	지안 스님의 금강경이야기 (클리어마인드)	지안
4	염불선 (클리어마인드)	덕산
5	좋은만남 멋진이별 (현대북스)	지광
6	돈오선 (클리어마인드)	월암
7	동지속의 대화 (현대북스)	효종
8	해와 달을 띄우고 신과 물을 펼친다 (클리어마인드)	영홍
9	기도밭 (현대북스)	일광
10	신심 (클리어마인드)	해인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불교 의문점에 대한 문·답 초심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지금은 그나마 다양한 불서가 서점에 자리하고 있다. 불서를 읽는 사람이 많지 않고 불교출판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20여 년 전만해도 해도 갖 불교에 입문하려는 사람에게 적당한 불서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대학에서 불교학회 활동을 할 때 눈높이에 맞는 불서는 거의 없었다. 동국대에서 나온 <불교학개론>이 주된 교재였다. 그 개론서 역시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었다. 기타 불교사 관련 서적도 있었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 상태에서 선우배가 함께 공부했던 기억이 새롭기만 하다.

그러한 시간 속에 <미리다 광>은 참으로 소중한 책이었다. '미리다 광'란 말은 빨리 성전에 속하는 것으로, <밀란다왕문경>, 또는 <나선비구경> 등으로 한역되어 있다. 여기서 '미리다'는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서북 인도로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 왕인 밀린다(또는 메난드로스)를 말한다. '광'은 질문이라는 뜻이다. 즉, 이 경은 그리스 왕인 미리다왕이 인도 스님인 나가세나 존자(또는 나선비구)에게 불교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와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왕이 불교에 대해 나는 의문과 질문은, 우리 같은 초심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불교를 접하면서 다양한 의문들을, 미리다왕은 우리를 대신하여 나가세나 존자에게 과감하게 질문공세를 펼친다. 이 질문에 대해 나가세나 존자는 알맞은 비유를 들어 명쾌하게 답변한다.

수레를 비유로 들어 '나'라고 할 자성

서경수 역

목경찬(사찰, 어느 것

이 없으며, 단지 '이름 뿐'이라는 가르침은 너무도 유명하다. '모순 여부', '해를 느끼는가', '업은 어디에 있는 체는 소중한가' 된다.

이 가운데 기방편 교설로서 안 악행을 저질 염불을 하면 극의문에 대해 나

한다. “대왕이여, 백바위라도 배에 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 업은 배와 같습니 한편으로는 부

조한, '자신의 말'이 큰 가르침 없이 책을 읽는 을 세는 것과 같 말을 한다. '문자 참고로 <미리다' 역본이 있다. <16>(서경수 역, 문경1) (불전간 밀린다왕문경1 2000) 등이다.

내 인생의 불서 한 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佛紀 2552年 Buddha's birthday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사)부산파라미타 청소년 협회

- 총재 정여
- 부총재 심산 원허
- 사무총장 일광
- 협회장 백명숙
- 총동무회장 손태석
- 고동무회장 박병택
- 사무국장 이육태

부산시 연제구 연산 5동 1330-9 부산불교신도회관 7층 파라미타 TEL 051)513-4306 / FAX 051)513-4307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승무복, 모듬북·장고·징·팽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생명 에너지를 굴간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현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20년 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역
-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 2번 구역
-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조계종 77조 인가제자 대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

백운 전등록 전5권 / 교본 무문관 / 교본 벽암 교본 천부경 / 교본 금강경 / 교본 신심명 / 교본 반야심경 / 교본 선문염송 전30권 중 1 권 / 교본 환단고기 전5권 / 교본 범용선사심명 / 교본 선가귀감 / 주머니 속의 심경 / 영홍 교본 앞달에 국화꽃 곁고 복산에 찻는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복체로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책선원 선가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책선원 영안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책선원 영안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책선원 반야

02-3494-0122 www